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양변 떠나야 진실

진부대왕이 질문했다.
학승이 물었다.
“노스님은 춘추가 높으신데 치아가 몇 개나 남아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한 대뿐입니다.”
대왕이 말했다.
“그것으로 어떻게 물건을 씹으실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나하나 씹습니다.”

鎮府大王問 師尊年有幾箇齒在 師云 只有一箇牙 大王云 爭喫得物 師云 雖然一箇 下下咬著

추월몽민(秋月龍眠)씨는 하하교저(下下咬著)가 다른 사본에 일일교저(一一咬著)로 되어있는 곳이 있다 했고, 또 변문집 교기(校記)에 현재 화북(華北)지방 방언 하하(下下)는 낱낱(一一)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있었다고 했다. 이 대목은 조주 선사의 신변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선사들은 더우면 더다하고 추우면 춥다고 한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 조주 스님은 110세경이 되자 그동안 이빨은 다 빠져 오직 한 개만 남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빨이 1개만 있어도 좋다. 산중의 노승은 급할 것이 없다. 음식물을 하나하나 씹으면 된다. 이빨이 다 빠져 잇몸만 남아도 좋다. 그대로 적응하면서 음식물을 넘길 뿐

이다. 공연히 노승을 걱정하지 말라. 어떤 상태가 되어도, 심한 고통을 받는 중병이 들어도, 도인의 마음은 항상 평평(平平)하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학인의 구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큰 소리로 물어라.”
학승이 예배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질문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왜 높고 낮은 것은 불문하고 ‘무엇이 저의 구슬입니까’ 하고 묻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학인이 다시 되물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하마터면 이 사나이를 그냥 놓칠 뻔했어.”

問 如何是學人珠 師云 高聲問 僧禮拜 師云 不解問 何 不道高下即不問 如何是學人珠 何不與?問 僧便再問 師云 ?合放過者漢

구슬은 자기의 주인공을 말한다. 그 구슬은 이리저리 굴러가도 변함없이 그 빛을 유지한다. 실사 선사가 ‘큰 소리로 물어라’ 라고 독촉해도 큰 소리로 아니고 작은 소리로 아닌 자기의 목소리, 처음 물었을 때의 그 톤으로 묻는 것이 바로 학인 자신의 본래 구슬이다.

선사의 한 마디에 높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을 하고 물러서거나, 선사가 큰 소리로 물으라고 했다가 여 선사의 지시대로 큰 소리로 묻는 것은 말을 따라가는 것이다. 학인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질문은 적당한 크기의 질문이면 충분하다. 그 톤을 유지하면서 낭랑하게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학인의 구슬입니까?’ 하고 물었다면 조주 스님은 ‘음, 참 좋은 구슬이야.’ 하고 말했을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이변(二邊)이 적적(寂寂·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금년은 풍파가 없다 하겠네.”

問 二邊寂寂 師如何闡揚 師云 今年無風波

이변(二邊)은 양변(兩邊)이다. 두 가지 상대적인 개념이다. 선악, 시비, 남녀, 부귀와 빈천, 부처님과 중생, 더러움과 깨끗함, 공(空)과 색(色) 등이다. 세상의 언어는 이렇게 상반된 개념을 세워서 세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어디까지나 언어를 통틀기 위한 하나의 표현일 뿐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이 양변 속에 있지 않다. 양변을 떠난 사람이 나타난다면 적어도 그해는 재난이 없다. 하늘도 땅도 축복으로 가득할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㉞



여기에는 괴로운 것이 없다. 여기에는 고통이 없다 (울장 마하왕가)

왜 부처님께서는 항상 미소만 짓고 계실까? 나는 이토록 도탄에 빠져서 힘들어 하고, 괴로워 하고 있는데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한탄할 수 있다. 원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소설이 김동리(金東里) 선생의 『등신불』이다.

일제의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일본 군으로부터 탈출한 주인공은 바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다. 적어도 수많은 불상 중에서 하나라도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고통받는 부처님을 형상화한 작품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럴 때 비로소 중생들은 위로를 받으리라는 생각이다. 주인공은 마침내 소신(燒身)공양을 한 부처님, 즉 등신불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작품은 불교소설로 유명하였으나, 곰곰이 따져보면 불교정신에 투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다. “중생이 아프므로 내가 아프다”라는 유마거사의 아픔은, 대승불교의 정수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마거사의 얼굴이 언제나 중생의 얼굴을 닮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이 티끌세상에 산다고 해서, 부처님도 티끌세상에 사는 것일까? 객관적으로 볼 때 동일한 주소를 갖는다 하더라도, 중생의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는 서로 다른 장소이다. 중생은 예토(儼土)를 살고, 부처님은 정토(淨土)를 사신다.

정토를 사시는 부처님께서는 예토를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무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래 우리 함께 예토에 살자”라고 하실까? “너는 정토에 살아라, 내가 예토에 살게”라고 하실까?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서 오나라. 여기는 정토야, 이리 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다. 당신이 사시고 있는 정토가 정토임을 밝힘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그래,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토로 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직접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 “여기에는 괴로운 것이 없다. 여기에는 고통이 없다.”(일아스님 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빼알리 경전』, 민족사) 얼마나 멋진 선언인가! 얼마나 힘있는 선

언인가!
이 자비로운 손은 아사라는 젊은 청년에게 내밀어져 있다. “거기에는 괴로운 것이 있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다. 거기는 어디이고, 여기는 어디일까?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동일한 주소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번지수는 같은데, 부처님은 정토를 사시고 중생은 예토를 산다. 정토에 사시므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시고, 예토에 살고 있기에 중생들은 얼굴을 찡그린다.



고민이 없으신가?

그림·박구원

미소 지을때 희망이 있다
부처님 손잡고 정토로 가자

우리에게 부처님은 정토라는 탈출구를 제시해 주시는 어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소지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다. 부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찡그린 얼굴, 고통스런 얼굴이라면 우리에게 탈출구가 없게 된다. 희망이 없게 된다. 동리선생의 불교이해가 깊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하는 까닭이다.

“여기 와서 앉거라”고 하시면서, 내밀어 주시는 부처님의 손을 우리가 잡는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리라. ‘거기의 삶’이 아니라 ‘여기의 삶’이 시작될 것이기에,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의해서 자유로워지는 삶 말이다. 그 정도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부처님의 미소 띤 얼굴이다. 이 세상에 고통으로 일그러진 부처님의 얼굴은 하나도 없어야 하며, 있을 수도 없는 까닭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11>

팔정도-③정어(正語)

구업짓지 않는 계행...정사유에서 비롯

언어 능력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이 복잡하고 섬세한 체계의 언어 기능 덕분에 인류는 현재와 같은 고도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의사소통수단인 언어를 통해 정보를 전파하고, 서로 교섭하며 많은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종교와 철학은 물론이고, 첨단 과학이라 한들 언어라는 수단이 없었다면 결코 형성되지도 않았고, 전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즉 인간의 정신적 행위는 언어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불교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어를 초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도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언어의 세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어의 기능이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전하는 것처럼 좋은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남을 해하기 위한 거짓말과 망령된 사탄 말 역시 언어의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봐도 서로의 말 때문에 분쟁을 겪게 되고,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순간은 셀 수 없이 많다. 굳이 역사까지 들춰볼

요 없이 누구라도 한 번쯤은 살아가면서 말로 인한 오해 때문에 곤란한 처지를 당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또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말을 하는 사기꾼이나 위선자를 접할 때도 있다.

팔정도의 세 번째 항목인 정어(正語)는 이러한 언어의 나쁜 기능을 통제하고 끊어버리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말은 결국 생각에서 나오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언어생활에는 반드시 올바른 생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사유(正思惟) 뒤에 정어가 놓인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그릇된 행위를 크게 열 가지로 나누어 십악(十惡)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열 가지는 살생(殺生)·투도(偷盜)·사음(邪淫)·망어(妄語)·기어(綺語)·악구(惡口)·양설(兩舌)·간담(奸貪)·탐심(貪心)·진심(瞋心)·치심(癡心)인데, 이 중 망어·기어·양설·악구의 네 가지가 말과 관련된 악업이다. 바른 것을 말한다는 뜻의 정어는 바로 이 네 가지 구업(口業)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망어는 의도적으로 하는 나쁜 거짓말을 뜻하고, 기어는 결만 좋아 보이고 실속 없이 자신과 타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의미하며, 양설은 타인끼리 사이좋은 것을 보고 질투해 이간질 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

서 양설을 ‘이간질’의 ‘이간’을 써서 이간어(離間語)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악구는 사람을 매도하고 흉보고 나쁜 게 말하는 것으로 남을 성나게 하는 악담도 악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나쁜 언어행위는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도(佛道)를 닦는 수행에도 방해가 되는 장애 중 하나이다.

이상의 네 가지 잘못된 언어적 행위를 벗어나 진실을 말하고, 자애심으로 바르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중재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을 하는 것이 정어이다.

정어는 좋은 의도가 있는 바른 생각, 즉 정사유로부터 생긴다. 또 정어는 바른 언어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유지하려는 습관을 붙이는 것도 포함된다. 이것은 계를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행위와 같다. 불교에서 수행자가 반드시 닦아야 하는 세 가지 항목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 중, 정어를 계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계는 바른 습관을 붙이는 반복훈련과도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습관이 모아서 성격이 형성되고, 습관과 성격은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매순간 모든 것이 수행처라고 했다. 日勇극대 불교학석사·前 본지기자

빙의의 시대 증상을 바로 알면 치료법이 보인다!!!



빙의의 시대

빙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또 그 치료법은 무엇인가?
일평생 빙의치료를 공부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후 영역에 있어야 할 귀신이 인간한테 점신되는 과정과, 귀신을 천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빙의의 시대 2

<빙의의 시대>를 출간한 뒤 수많은 독자와 빙의 환자, 또 그들의 보호자들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1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는 귀신에 점신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조기퇴치의 방법, 본인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귀신 [빙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정신질환·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무당 생활이 싫으신 분
- 몸에 통증은 있지만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이 없는 분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좌골신경통으로 오래 동안 고생하시는 분
- 다른 곳에서 귀신(빙의) 처리를 못하신 분
- 귀신(빙의) 처리를 못할 경우 돈을 받지 않습니다.(환불해드립니다)
- 말기 간암환자

상록정사
빙의의 시대 저자

일광도인 ☎ 02) 743-7679
H·P 010-5040-7679
서울 종로구 송인동 76번지 롯데캐슬④ 지동 309호

※ 직접 상담요망, 전화상담은 사절합니다.

※ 책구입은 인터넷 서점이나 우리출판사(02-313-5047)로 신청하세요.